

유럽 5개국의 돼지 생산비 비교 · 분석

- 홍 보 부 -

유럽 주요 5개국의 생산비 비교는 네덜란드 양돈연구소의 배커스(BACKUS) 박사과 배센박사가 각국 양돈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생산비 비교를 실시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유로포크(Europorc)라는 이름으로 지난 95년부터 행해지고 있다. 유로포크에 의한 국가간의 생산비 비교 시스템은 개별농가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유로포크에 의한 생산비 비교를 위해 제공된 국가적인 데이터로 부터 알수 있었던 한가지는 한 나라안에서 최상의 양돈농가와 최하의 양돈농가 사이의 결과는 나라 사이의 차이 보다도 더 광범위 했다. ◇...편집자 주...◇

1. 각국 양돈산업 구조차이 때문에 생산비 비교 어려워

유럽연합의 몇 개 회원국가들의 연구소는 그들 국가의 양돈산업의 경쟁요소를 생산성과 비용등으로 비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비교표를 만드는 것은 생각하는 것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유럽 회원국들의 각종 데이터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구적으로 모니터 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비 비교 프로젝트의 첫번째 요구사항은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유로포크(Europorc)라 명명되어 1995년도부터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영국, 이태리에서 도체중 1kg당 평균 생산비용을 산출했다.

또한 사료비, 노임, 건축비, 이자부담, 폐사비용, 잡비 등을 계산했다. 이 비용이 자돈 또는 비육돈 1두당으로 집계되지 않고 1kg당으로 처리된 것은 생산비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양돈산업 구조의 차이점 때문이다. 예를들면 프랑스 대부분 양돈농가는 자돈을 생산해서 비육돈 사업을 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자돈 생산농가와 비육돈 생산농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번식과 자돈을 병행하는 일관생산체제 농가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자돈 생산농가와 비육돈 사육농가로 전문화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양돈 생산성도 비교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똑같은 공식에 따라 집계된 모든의 연간 이유자돈수를 볼 수 있다. 이 표는 모든의 생산성에서 덴마크와 프랑스가 가장 높으며, 이태리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은 일당증체량도

보여주고 있다.

2. 일당증체량은 네덜란드 729g, 영국은 586g

이 표에 기록된 일당증체량은 각국간의 도체중 차이 때문에 보정을 거친 것이다. 이태리에서는 도체중이 평균 129kg, 네덜란드는 87kg, 프랑스는 83kg, 덴마크는 74kg, 영국은 66kg이다. 이러한 도체중의 차이 때문에 증체량 보정을 거친 후 일당증체량을 비교해 본 결과 덴마크의 일당증체량이 가장 높았다. 사료 요구율은 네덜란드가 가장 낮았으며 덴마크와 프랑스가 그 다음을 기록했다.

〈표1〉 유럽 5개국 양돈 생산성 비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태리
연간 이유두수	21.59	21.80	21.80	21.32	19.98
일당증체량(g)	729	744	728	586	613
사료요구율	2.79	2.80	2.90	2.58	3.58

〈표2〉는 투자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과 이태리는 총 투자비용만 조사되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프랑스의 생산 단계별 투자비용 비교에서는 프랑스가 모돈 1두당 사육면적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었으며, 네덜란드는 자돈 1두당 사육면적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다.

〈표2〉는 각국의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태리가 연간 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들은 이자율이 평균 7.5-8.0%에 이르고 있다. 노동력 투입비교에 있어서는 이태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표2〉 유럽 5개국 양돈 생산비 및 가격 (1995년도 자료)

	1두당 사육면적 투자비용(달러)		이자율(%)	사료 100kg당 가격	
	모돈	비육돈		모돈용	비육돈용
네덜란드	2712.2	458.9	7.20	23.16	24.55
덴마크	2993.5	386.3	8.30	26.26	25.30
프랑스	2074.9	359.5	7.50	25.32	23.48
영국	-	-	8.30	23.00	24.88
이태리	-	-	11.80	27.93	25.20

모돈관리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덴마크에서는 가장 낮은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덴마크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노동비용을 보면 이들 5개국이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동비용이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돈과 비육돈 1두당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는 각국의 모돈과 비육돈 사료에 대한 가격도 나타내고 있다. 모돈사료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싸고 이태리가 가장 비쌌다. 비육돈 사료의 각국간 가격차이는 모돈사료 보다는 덜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산비용에 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변이가 〈표 3〉에 잘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도체중 1kg당 투입된 노동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덴마크는 높은 임금구조 때문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태리는 모돈용 사료의 높은 가격 때문에 사료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의 높은 이자율은 도체중 1kg당 가장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체중 1kg당 돈사비용에 있어서는 이태리가 가장 낮은 반면 덴마크 양돈농가들은 가장 높은 비용을 들이고 있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돈사비용과 프랑스의 돈사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후조건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돈사는 별도의 흡입구가 없으며, 직접 공기유입에 의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비용 분석으로부터 얻은 한가지 결론은 사료가격에 관하여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나

<표3> 도체중 1kg당 비용분석

(단위: \$/ 도체중kg)

	노동비용	돈사비용	이자	사료	폐사비용	잡비
네덜란드	0.296	0.354	0.160	0.949	0.055	0.348
덴마크	0.290	0.374	0.199	0.969	0.046	0.283
프랑스	0.261	0.286	0.145	0.980	0.043	0.230
영국	0.240	0.281	0.200	0.990	0.035	0.237
이태리	0.277	0.235	0.267	1.083	0.091	0.276

했다.

네덜란드, 덴마크는 거의 2.16달러에 이르렀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98달러, 1.94달러를 나타냈다.

양돈산업의 경쟁력은

돼지 생산비용은 물론 육류 가격에도 의존한다. 1995년도에 도체중 1kg당 수취한 가격은 영국과 이태리가 높았으며, 다른 3개국은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았다.

라보다 역사적인 우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우위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 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3. 생산비 이태리가 가장 높고, 프랑스 가장 낮아

생산비용의 모든 변이들을 다 취합했을 때, 도체중 1kg당 총 생산비용에 대해 유럽 5개국 사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비용면에서 거의 같은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유로포크(Europorc)를 통한 생산비 비교방식에서 이태리는 1995년도에 가장 높은 생산비를 기록한 반면 프랑스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태리의 도체중 1kg당 생산비용은 2.23달러를 기록

4. 앞으로는 분뇨처리비가 생산비 높아

앞으로는 돼지 생산비용이 환경개선비와 가축 방역비, 동물 복지비 등과 같이 새로 제정되는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 이같은 법의 제정이 양돈업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돈분을 살포하기 위한 권리를 사야하므로 양돈 생산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養豚**

본지 캠페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